



## 전문가 리포트

### CES2021을 통해 본 2021년 테크 트렌드

1. 들어가며
2. CES2021의 의미
3. CES2021 주목해야 할 6가지 테크 트렌드
4. 마치며

# CES2021을 통해 본 2021년 테크 트렌드

김인순(더밀크코리아 대표)

## 요약문

팬데믹 속에 치러진 CES2021은 인류에게 닥친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자리였다. 기업은 코로나19로 사업장 셧다운, 공급망 붕괴, 고객 가치의 본질적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환경을 비롯한 지속가능 이슈는 CES 비주류였다. 이번 CES가 선보인 기술은 인간의 더 나은 삶뿐만 아니라 환경을 향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며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CES2021은 디지털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봇&드론, 차량 기술, 5G 연결성, 스마트 시티를 올해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 6가지 트렌드는 모두 인류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돕는 기술이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 1. 들어가며

세계 최대 테크전시회인 CES2021이 막을 내렸다. CES는 지난 54년간 성장하며 세계 최고의 테크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CES는 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올-디지털(All-Digital)'로 개최됐다. CES2021에 2,000여 개의 기업과 7만여 명의 참석자가 참가했으며, 이는 작년 참가율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CES2021은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 LG전자, GM, 버라이즌(Verizon), AMD, 벤츠(Benz), 소니 등 우수 기업의 전략과 방향을 파악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법칙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업종 간 경계가 붕괴한 이후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찾아 나선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 테크 전문 언론사인 더밀크는 2020년 1월 18일 열린 CES2021 디브리핑에서 이를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개막’이라고 표현했다.

## 2.CES2021의 의미

CES2021은 시작된 지 54년 만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CES2021 자체가 팬데믹 속 대형 전시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준 것이다. CES의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The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CTA)는 CES의 온라인 진행을 위해 기술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손을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팀즈(Teams), 파워플랫폼(Power Platform)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 세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CES2021은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전환의 가속화’, ‘집에 대한 개념과 기술 재정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술의 활용도 한 축을 차지했다. CES2021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뽐내는 현장이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서부터 인종갈등과 환경, 다양성 문제 등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이 아니라, 제품 제조와 유통에서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헬스케어’와 ‘웰니스’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기존 헬스케어 기업은 물론이고 가전 기업도 헬스케어 기능을 추가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놔다. 그동안 헬스케어나 웰니스 기술은 구호만 있고 실제 적용 사례가 적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하고 있다.

그림 1 올 디지털로 치러진 CES2021



출처: CEA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사가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 들었다.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플랫폼 시대로의 변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집을 둘러싼 기술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집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CES2021은 홈코노미 제품과 서비스 경연장이었다. 가전사는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고 운동하고,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까지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했다.

### 3.CES2021 주목해야 할 6가지 테크 트렌드

CES는 이번에 주목해야 할 6가지 테크 트렌드로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로봇 & 드론(Robotics & Drones), 모빌리티(Vehicle Technology), 5G 연결(5G Connectivity), 스마트 시티(Smart Cities)를 제시했다. 6가지 트렌드를 간략하게 아래 소개한다.



- **디지털 헬스** : 지난해 디지털 헬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73% 성장했고 올해는 43% 성장할 전망이다. 헬스 모니터링 기기,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 기기 등 의료 기기 신제품이 대거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 :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난해 2~3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3개월 만에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운동·교육·쇼핑 등 일상생활 활동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속화된다.
- **로봇&드론** : 로봇과 드론이 일상으로 파고든다.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업무를 하게 됐다. 병원과 상점 등에서 방역을 수행하는 용도로 급속히 발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택배와 식료품을 배달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로봇은 위험에 처한 개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친구와 가족 간 소통을 돕는 기기로 떠올랐다.
- **차량 기술** : CEA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와 C-V2X 연결, 자율주행차, 전기차 활성화를 차량 기술(Vehicle Technology)로 묶었다. MaaS는 대중교통과 자율주행 형식의 개인이동 수단 이용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CEA가 차량 기술로 내세운 MaaS와 C-V2X,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진정한 MaaS가 되려면 차량간 통신이 가능한 C-V2X가 실현돼야 하고 자율주행이 완성돼야 한다. 여기에 전기화까지 이뤄지면 탄소배출량까지 줄여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 **5G 연결** :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전환, 로봇과 드론, 자동차 기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바로 5G다. 퀄컴과 HIS가 내놓은 2020 5G 경제 연구(2020년 11월)에 따르면 5G 투자가 10.8% 증가할 전망이다. 5G 네트워크에 대한 R&D와 설비 투자가 연간 2,600억 달러로 예측된다. 미국이 1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조 7,000억 달러를 5G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15년간 일자리도 2,280만 개로 증가한다.

그림 2 CES2021 핵심 트렌드



출처: CEA

- **스마트 시티** : 네트워크 센서, 스마트 키오스크, 데이터 대시보드, 컨택 트레이싱 관련 시장이 커진다. 도시는 팬데믹으로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이제 사람들은 센서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어디가 안전한지 즉시 체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원한다.

### 3.1. 차량의 전기화 시대

2020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50만대에 육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은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테슬라의 성공과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의 발전, 차급 다양화, 환경 보호 이슈 등에 힘입어 글로벌 전기차(EV)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CES2021에서도 EV가 메인 주제로 부상했다. ‘EVS(EV+CE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졌다.



CES2021의 6개 키워드 중 하나도 ‘차량기술(Vehicle Technology)’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량 기술은 전기자율화다. 과거 CES에서 완성차 기업은 자율주행에 집중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화와 자율주행의 공존으로 넘어섰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차량은 제3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동을 넘어 엔터테인먼트가 강화되는 이유다.

앞으로 자동차 기업은 내연기관 제조기반을 버리고 모든 시스템을 전기화하며 자율주행을 내재화한다. 내연기관의 심장은 EV로 두뇌는 AI와 엣지컴퓨팅으로 전환된다. 자동차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클라우드 시대에서 AI가 가장 빠르게 적용될 애플리케이션이 자율주행차량이기 때문이다. 완성차 기업에게 전기화와 자율주행화는 차세대 모빌리티의 기본 형태가 됐다.

GM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다수의 완성차 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자율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0년 테슬라(Tesla)가 S&P500지수에 편입되고 기존 완성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전기차 볼트(BOLT)를 만들어온 GM은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GM은 ‘에브리바디-인(Everybody-in)’ 캠페인을 통해 2021년까지 전기차를 30종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래 기술에 270억 달러(약 30조 원) 투자계획도 공개했다.

그림 3 GM CEO의 ‘전기화(Electrification)’ 선언



출처: CES2021

GM은 이번 행사에 새로운 CI도 공개했다. 기존 GM 컬러인 블루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라데이션을 넣어 탄소중립이 실현된 맑은 하늘을 표현했다. 메리 바라 GM CEO는 이번 키노트에서 “교통사고, 탄소배출, 교통 체증 등 3개 부분에 대해 ‘제로’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GM의 전기화는 EV 자동차 출시 외에 물류사업에도 반영된다. 기조 발표에서 전기차 기반 물류솔루션 사업 ‘브라이트 드롭(BrightDrop)’을 공개했다.

소니(SONY)도 전기차에 대한 열망을 계속 드러냈다. 소니는 CES2021에서 전기차 ‘비전 S(Vision S)’ 프로토타입의 주행 영상을 공개했다. 소니는 2020년 CES에서 처음으로 비전S를 선보이고, 2020년 12월부터 오스트리아 공공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 소니는 차량용 CMOS 이미센서 40개를 내외부에 설치했다. 이 센서가 운행 중 안전을 지속해서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비전S는 사람의 시야를 능가하는 센싱 기술로 차량 주변에 360도 뷰를 제공하고, 운전자와 차량 내부 상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감지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해 안전함과 편안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셀프 주차, 자동 차선 변경 등 레벨2+ 운전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레벨4에 상응하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 3.2. 홈코노미 핵심으로 떠오른 ‘개인화와 로봇’

최근 몇 년간 CES 주요 토픽 중 하나였던 ‘스마트홈(Smart Home)’이 2021년 ‘홈코노미(home+economy)’로 업그레이드됐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집에 머무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든 활동을 집에서 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많은 기업이 CES 2021에서 가전, 로봇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선보였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IT 기술 기반 운동 장비,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를 선보인 기업도 많았다.

삼성전자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보다 나은 일상을 위한 ‘개인화’를 강조했다. 개인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를 전면에 내세웠고, 라이다와 3D 센서, 인텔(Intel) 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청소기 ‘제트봇 AI’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스스로 물체를 인식하고 장착된 로봇 팔로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삼성봇 핸디’도 공개했다.





그림 4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정용 로봇 제품



출처: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편하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냉장고, 맞춤형 공간 인테리어 가전인 ‘오브제컬렉션’을 선보였으며 UV-C 램프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역 로봇 ‘클로이 살균봇’을 공개했다. 이밖에 샤워기에 설치해 집에서 샤워를 하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수력 발전 블루투스 스피커 ‘샤워 파워’ 등이 주목을 받았다. 샤워 파워는 미국 스타트업 회사암페어(Ampere)가 만든 제품으로 CES 2021 혁신상을 받았다.

### 3.3. 디지털 헬스 : 집, 병원, 약국은 하나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장 부각된 산업 영역이다. 그동안 규제, 기존 기득권 산업군의 방어로 막혀 있던 장벽이 강제로 허물어 지면서 존재 가치가 드러났다. 카렌 चुпка (Karen Chupka) CTA(미국 소비자기술협회) 부사장은 “CES 2021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뉴노멀 디바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비대면 관련 기술, 디바이스가 쏟아져 나왔다. 디지털 헬스 세부 분야 중에서는 원격 의료(telemedicine),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게임용 PC 업체 레이저(Razer)가 선보인 특수 마스크 ‘프로젝트 헤이즐(Project Hazel)’이 대표적인 예다. 프로젝트 헤이즐은 환기구와 조명, 앰프가 부착된 다화용 마스크이다. 욕실 브랜드 ‘콜러(Kohler)’는 손을 대지 않고 물을 내릴 수 있는 터치리스 양변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간편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 ‘바이오버튼(BioButton)’도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버튼은 코로나 증상 식별 및 모니터링도 가능해 CES 2021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 헬스케어 업체 오므론(omron)이 선보인 혈압 모니터링 서비스 ‘바이탈사이트(VitalSight)’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림 5** 환기구와 조명, 앰프가 부착된 특수 마스크 ‘프로젝트 헤이즐’



출처: 레이저



### 3.4. AR과 5G: 미디어, 메타버스로 간다

홈 엔터테인먼트가 확산하면서 미디어·콘텐츠 관련 장비, 기기, 서비스도 주목을 받았다. 스트리밍 기반 동영상 콘텐츠, 사용자 경험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디바이스, 솔루션이 개발되는 추세다.

앤 사노프(Ann Sarnoff) 워너미디어(Warner Media) 회장 겸 CEO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환경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워너미디어는 2020년 4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Hulu)의 CEO였던 제이슨 킬라(Jason Kilar)를 신임 CEO로 선임하며 재빠르게 조직을 개편했다.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워너미디어, HBO 등 대부분의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펼치면서 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미디어 기술은 스트리밍을 넘어 ‘메타버스’로 나아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CES 2021에서도 스트리밍과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솔루션이 부각됐다. 한스 베스트버그 버라이즌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AR(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NFL(미국프로풋볼) 경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고,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더 멧 언프레임드(The Met Unframed)’를 공개하기도 했다.

### 3.5. 디지털 전환: 모든 기업은 이미 테크 기업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CES 2021은 행사 자체가 ‘기업 디지털 전환’의 표본이었다. 전 세계에 서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장성(scalability)을 갖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필수였다. CTA는 CES 2021 기술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디지털 행사장을 개발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일부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접속해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CLO(최고법률책임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말 미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업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5G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전환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보안이 중요하다고 설파한 것이다.

여러 기업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 미국 중장비 업체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캐터필러(Caterpillar)는 광산 혹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CAT 자율주행 트럭을 소개했다. 스스로 움직이며 중앙 관제 형식으로 원격 모니터링해 제어하는 트럭이다. 농기계 업체 존 디어(John Deere)도 액티비전(ActiveVision) 카메라 기술이 장착된 새로운 X-시리즈 콤팩트를 공개, CES 2021 혁신상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중장비 외에도 여러 전통 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타이어의 브릿지스톤(Bridgestone), 뷰티 분야의 로레알(L'Oréal), 생활 분야의 P&G 등 각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CES 2021에서 공개했다.

**그림 6** 중앙에서 관제, 무인으로 작동하는 캐터필러의 중장비



출처: CES



### 3.6. 작은 디스플레이 경쟁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은 전통적으로 매년 CES에서 가장 관심을 받던 주제였다. 디스플레이가 클수록, 더 밝을수록(8K) 관심을 모았다. 현재 TV는 LCD(액정표시장치) 혹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발광)를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다. 이번 CES 2021에서는 ‘소형’ 경쟁이 벌어졌다. 화면 크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자, 광원 얘기다. 마이크로 LED, 미니 LED 같은 소형 LED를 디스플레이 소자(마이크로 LED, 자발광) 혹은 디스플레이 광원(미니 LED)으로 활용하는 TV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니 LED TV가 주연으로 조명을 받았다. 가격대가 높은 마이크로 LED TV 역시 B2B(기업 간 거래)에서 가정용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림 7 삼성전자 Neo QLED 8K



출처: 삼성전자



### 3.7. 테크도 ESG : 환경, 데이터, 스마트시티

2020년 미국에서는 가뭄, 고온, 화재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내포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자 기업의 경영 성과 분석,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된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2010년대는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이 장악했으나 향후 10년의 키워드는 ESG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CES 2021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ESG를 강조했다. ESG는 MZ세대 등 구매력이 급증하고 있는 미래 소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월마트 CEO인 더그 맥밀런(Doug McMillon)은 기조연설에서 월마트가 추진 중인 인종 차별 금지, 기후 위기 개선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삼성전자도 30분간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 중 약 10분을 할애해 ESG를 강조했다.

가장 돋보인 기업은 보쉬였다. 보쉬(BOSCH)는 2020년에 최초로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밝혔고, 협력사(별류 체인)와 힘을 합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추가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감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림 8 이산화탄소 15% 추가 감축 계획을 밝힌 보쉬



출처: CES2021



### 3.8. AI는 모든 곳에

AI(인공지능) 분야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다. ‘AI는 소프트웨어처럼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술’이라는 전제가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이다. CES 2021에 참여한 기업들은 AI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실질적인 AI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모든 서비스나 제품 기저에 AI 기술이 깔려 있다는 메시지가 많았다. AI 솔루션을 탑재한 삼성전자, LG전자의 로봇 가전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 분야에도 마찬가지였다. 12일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사 수(Lisa Su) AMD CEO는 AI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대거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HP, 루카스 필름(Lucas Film) 등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함께 등장해 AMD 칩의 활용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인텔 역시 11세대 Core H-Series 모바일 프로세서 등 고성능 프로세서를 대거 공개했다. 500종 이상의 새로운 노트북 내놓고, 50여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AI 에브리웨어(Everywhere) 시대에 다양한 인텔 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그림 9 리사 수 AMD CEO



출처: CES2021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IBM의 AI 기반 자율주행 선박도 관심을 끌었다. IBM은 해양 연구 비영리단체인 프로메어(ProMare)와 협력해 AI 선장을 구축, 메이플라워 자율주행선(Mayflower Autonomous Ship)을 선보였다.

## 4. 마치며

몇몇 대기업들이 불참했지만 이번 CES에서 한국기업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참가기업 수가 지난해(390여 개)보단 줄었지만, 전체 참가기업이 절반가량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올해 CES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의 GS칼텍스, 네이버, 한글과컴퓨터그룹, 루멘스, 바디프렌드, 포스코ICT 등이 신제품과 기술을 뽐냈다. 또 가상터치 패널을 선보인 브이터치, AI 연기자 서비스를 시연한 네오사피언스,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뷰런테크놀로지 등 180여 개 스타트업들이 참가했다.

중국기업이 대거 빠진 점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였다. 중국은 지난해 1,360여 개에서 무려 85%나 감소한 199개사가 참가했다. 화웨이(Huawei)나 TCL, 하이얼(Haier) 등 중국 기업들은 매년 삼성, LG 주변에 대형 전시관을 차리고 글로벌 진출의 포석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거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기업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CES 2021 기조연설은 9명의 기조연설자 중 5명이 여성 CEO였다.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중심이 된 CES 기조연설 무대가 됐다. CES 기조연설자로 선정된 GM의 CEO 매리 바라(Mary Barra), AMD의 CEO리사 수(Lisa Su), 워너 미디어의 앤 사르노프(Ann Sarnoff), 베스트바이(Best Buy)의 CEO 코리 배리(Corie Barry)는 각사 최초의 여성CEO일 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 반도체,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지털 유통매장 최초의 여성 CEO로 임명된 인사로 각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깬 인물들이다. 이 같은 기조연설 라인업은 미국 최초로 여성 부통령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는 등 유리천장이 점차 깨지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CES 2021이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했다.





## REFERENCE

1. 세계적 화두, ESG 경영 성공하려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4540587>)
2. Verizon Keynote (<https://www.ces.tech/Videos/2019/Verizon-Keynote.aspx>)
3. Verizon Introducing the World, Powered by 5G (<https://www.ces.tech/Articles/2021/January/Verizon-Introducing-the-World,-Powered-by-5G.aspx>)
4. Verizon at CES 2021 (<https://www.verizon.com/about/ces-2021>)
5. Walmart Keynote (<https://digital.ces.tech/sessions/d8a02de4-2915-489e-850f-605af03d08c9>)
6. Walmart Goes Faster Forward with Tech (<https://www.ces.tech/Articles/2021/January/Walmart-Goes-Faster-Forward-with-Tech.aspx>)
7. BoschCES (<https://www.bosch.com/stories/ces-2021-smart-and-climate-friendly-solutions/>)
8. Bosch (<https://www.securityandsafetythings.com/insights/ces-2021-our-award-winning-platform-powers-the-future-of-ai-camera>)
9. 보쉬 CES 2021, '인간과 환경보호 위한 인공지능과 커넥티비티 신뢰' 주제로 AIoT 솔루션 선보여 (<https://www.securityandsafetythings.com/insights/ces-2021-our-award-winning-platform-powers-the-future-of-ai-camera>)
10. MS CES 2021 (<https://news.microsoft.com/ces2021/>)
11. MS Keynote (<https://digital.ces.tech/sessions/a71a0355-d7a8-4191-8cfb-11f9f2a8a516>)